

# 순천 松廣寺 普照國師 甘露塔과 甘露塔碑에 대한 고찰

## 엄 기 표\*

- I. 서론
- II. 甘露塔과 甘露塔碑의 조성과 내력
- III. 甘露塔과 甘露塔碑의 조영 기법과 양식
- IV. 甘露塔과 甘露塔碑의 특징과 미술사적 의의
- V. 결론

## I. 서론

순천 松廣寺는 신라말기 慧璘禪師가 吉祥寺로 창건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 들어와 普照國師 知訥(1158~1210.03.27)의 定慧結社를 통하여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sup>1</sup> 특히, 고려 熙宗(재위 1204~1211)은 왕명을 내려 松廣山 吉祥寺를 曹溪山 修禪社로 개칭하고 친필로 쓴 현판을 내리기도 했다. 그래서 松廣寺는 吉祥寺, 定慧社, 修禪社, 曹溪寺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었다.<sup>2</sup>

\* 단국대학교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sup>1</sup> 韓國佛敎研究院, 『松廣寺』(一志社, 1988), pp. 20-30.

<sup>2</sup> 林綺山 編, 『曹溪山松廣寺誌』, (松廣寺, 1965), 참고.

참고로 林綺山스님(1892~1968년)은 1930년대부터 해방되던 해까지 송광사 주지를 역임하였으며, 본관은 나주,

고려후기에는 호남지역의 사찰들이 최씨 무신정권의 지원을 받으면서 중요 사찰로 성장하였는데, 특히 普照國師 知訥의 순천 松廣寺와 함께 圓妙國師 了世(1163.10~1245.7.7)에 의한 白蓮結社가 있었던 강진 白蓮寺가 불교계를 리드해 나갔다.<sup>3</sup> 이중에서 송광사는 보조국사 지눌이 주석한 이후 寺勢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조선시대 들어와 억불승유 정책 기조로 불교계가 위축되었지만 폐사되지 않고 법등이 지속되면서 禪刹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조선초기까지 16명의 國師가 배출되면서 불교계의 중심 사찰이었으며, 이러한 전통이 지속되어 오늘날 조계종의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王師나 國師에 책봉되었거나 그러한 지위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았던 승려들에게 下山所 격인 사찰에 僧塔과 塔碑를 건립해 주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고려 후기 불교계를 리드했던 순천 송광사 출신 16國師도 대부분 승탑과 탑비가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16국사 중에 9국사의 승탑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순천 송광사를 중심한 조계산 자락의 암자를 비롯하여 강진 月南寺, 보성 大原寺, 영광 佛甲寺 등 살아생전 인연이 깊었던 사찰에 세워졌다.<sup>4</sup> 이중에서 보조국사 지눌은 16국사의 初祖로서 그의 승탑과 탑비는 송광사에 건립되어 상징적인 조형물로서의 의미도 있었다.

그런데 순천 송광사에 남아있는 보조국사 지눌의 甘露塔과 甘露塔碑의 조영 기법과 양식적 특징에 대한 고찰은 미비한 편이라 할 수 있다.<sup>5</sup>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감로탑과 감로탑비의 내력, 감로탑의 독특한 양식적 특징과 미술사적 의의 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전남 순천 송광면 신흥리 출신이었다.

- 3 강진 白蓮寺는 고려 후기 圓妙國師 了世의 法統을 잇는 天因, 圓暉, 天頤 등이 머물렀으며, 총 8명의 國師를 배출하는 등 순천 松廣寺와 쌍벽을 이루었던 사찰이었다(엄기표, 「강진 백련사의 석조미술과 원묘국사의 부도와 탑비」, 『호남문화연구』60(2016), pp. 1-42.
- 4 松廣寺 출신 16國師의 浮屠와 塔碑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鄭永鎬, 「住岩澗水沒地區 美術史分野 調查報告」, 『住岩澗水沒地區 地表調查報告書』, 全南大學校 博物館, 1985; 崔仁善, 「順天市의 佛教文化遺蹟」, 『順天市의 文化遺蹟 II』, 順天大學校 博物館, 2000; 정신중, 「高麗 浮屠銘」, 『불교문화연구』8, 2001; 崔仁善, 「圓鑑國師의 遺蹟과 遺物에 관한 考察」, 『圓鑑國師 沖止의 生涯와 思想』, 송광사, 2002; 徐惠銀, 「松廣寺 16國師의 石造浮屠 研究」, 순천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엄기표, 「高麗後期 松廣寺 出身 16國師의 石造浮屠 研究」, 『文化史學』29, 2008.
- 5 고유섭, 「순천 송광사 佛日普照國師甘露塔」, 『朝鮮塔婆의 研究 下』(열화당, 2010), pp. 403-405.

## II. 甘露塔과 甘露塔碑의 조성과 내력

보조국사 지눌은 살아생전의 행적, 입적 직후 장례에 따른 승탑과 탑비의 건립 과정 등이 탑비문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탑비문에 의하면, 보조국사 지눌의 승탑은 1210년 3월 27일 입적 직후에 세워져 塔號를 ‘甘露’라 하였으며, 탑비는 여러 절차를 거쳐 1213년 4월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초건 당시 보조국사 지눌의 墓塔의 성격의 승탑은 甘露塔, 한 쌍으로 건립된 탑비는 甘露塔碑로 명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甘露塔은 松廣寺 靈山殿 뒤편에 조계산 자락에서 흘러내린 낮은 능선 끝 지점에 세워져 있는데, 이 지점은 송광사 경내가 한눈에 조망되는 곳이기도 하고,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좋은 자리임을 쉽게 알 수 있다.(도 1) 그리고 초건된 원래의 위치는 아니지만 감로탑비가 송광사 浮屠庵의 서편에 조성되어 있는 浮屠群의 제일 상단에 세워져 있다. 이곳은 살아생전 보조국사 지눌과 인연이 깊었던 普照庵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도 2) 이러한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의 승탑과 탑비의 건립 위치를 선정할 때 살아생전의 행적, 송광사의 지리적 입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부도암 부도군은 조선후기에 들어와 浮休大師 善修(1543.02~1615.11.01) 이후 송광사의 위상을 대내외에 선양한 승려들의 승탑이 繼祖와 法統에 따라 단을 이루며 체계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부도군의 제일 상단에 松廣寺 事蹟碑(1678.10)와 함께 좌우로 나란히 감로탑비가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감로탑비가 건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후기에 들어와 부휴대사 선수를 비롯한 송광사 출신 승려들의 승탑과 탑비가 지속하여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감로탑비는 그 자체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sup>6</sup>



도 1 송광사보조국사감로탑(2005년 촬영)

<sup>6</sup> 엄기표, 「順天 松廣寺의 朝鮮後期 石造浮屠 研究」, 『文化史學』30(2008), pp.91-149.



도2 송광사부도암부도군 전경과 상단에 위치한감로탑비(2005년 촬영)

한편 보조국사 지눌의 행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는 鄭氏로 무신정권이 성립되기 직전인 1158년 京西 洞州(황해도 瑞興)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諱가 知訥, 自號는 牧牛子였으며, 1165년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1188년 八公山 居祖寺에 주석하고 있는 得才스님을 찾아가 수행 정진하였다. 당시 거조사에서 수행하며 修禪結社를 시작하여 1190년에 結社의 취지를 밝히는 「定慧結社文」을 지어 반포하고 승려들의 동참을 촉구한다.<sup>7</sup> 최씨 무신정권이 1196년 들어서자 1198년 禪客들과 함께 지리산 上無住庵에 은거하여 수행에 전념하다가 大慧普覺禪師의 語錄인 『大慧語錄』을 읽고 크게 깨달았다고 한다. 이후 松廣山 吉祥寺로 옮겨 주석하자 많은 문도들이 운집하였으며, 고려 희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松廣山 吉祥寺를 曹溪山 修禪社로 개칭하고 친필로 쓴 현판을 내리며, 지눌에게 滿繡袈裟 한 벌을 하사한다. 이후 지눌은 11년간 수선사에 주석하며 고려 불교계를 리드했다.

그러다가 송광사에서 1210년 3월 20일 병을 보이다가, 3월 27일 문도들을 모아놓고 마지

<sup>7</sup> 普照國師知訥은 부처의 말씀이 敎이고, 조사의 말씀이 禪이라고 한다면 이 둘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敎禪一致思想으로 祖師도 부처의 지위와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사상이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禪定과 智慧를 둘 다 닦자는 定慧雙修로 구체화되었다. 李德辰, 「普照知訥의 禪思想 研究-中國佛敎와 關聯하여-」(고려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참고.

막 설법을 한 다음 法床에 앉은 채로 입적했다고 한다.<sup>8</sup> 이에 문도들이 지눌의 유체에 7일간香油과 燈을 공양하며 추모하였다고 한다. 당시 고려 희종은 지눌의 부음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諡號를 ‘佛日普照國師’, 塔號를 ‘甘露’라 내렸다. 그리고 문도들이 지눌의 유체를 화장한 후 유골을 수습하자 큰 사리는 30과, 작은 사리는 무수하게 나왔다고 한다. 이에 수선사의 북쪽 기슭에 유골과 함께 수습한 사리를 봉안한 浮圖(僧塔)를 세웠다고 한다(‘茶毗拾遺骨皆五色得舍利大者三十小者無數浮圖于社之北麓’).

이러한 탐비문의 기록으로 보아 보조국사 지눌의 승탑은 1210년 3월 27일 그가 입적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선사의 북쪽에 있는 산기슭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211년 보조국사 지눌의 嗣法 제자로 33세의 나이에 수선사의 2대 사주가 된 眞覺國師 慧謙(1178~1234.06.26)이 중심이 되어, 지눌의 행장을 모아 국왕에게 올리고 탐비를 세워줄 것을 주청하였다. 그러자 국왕이 金君綵에게 碑文을 찬하도록 하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탐비문이 완성되자 內侍 金振 등이 왕명을 받들어 1213년 4월에 탐비를 세웠다고 한다.(〈표-1〉) 탐비문의 書者는 柳伸(?~1104년), 刻者는 寶昌이었다.(도 3~5) 이러한 것으로 보아 보조국사 지눌의 승탑과 탐비는 지눌이 입적한 지 4년 만에 모두 건립되어, 이전에 입적한 다른 고승들에 비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완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9</sup> 이것은 당시 순천 송광사가 최씨 무신 정권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고, 고려사회에서 보조국사 지눌의 종교적 위상이 상당히 높았으며, 승탑과 탐비의 건립에 따른 설계와 시공 등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sup>8</sup> 普照國師知訥이 1210년 수선사에서 입적한 사실은 강진 월남사지에 남아 있는 진각국사 혜심의 탐비문에도 기록되어 있다. 당시 보조국사 지눌은 혜심에게 수선사 寺主 자리를 선양하고 圭峯庵으로 물러나려 하였으나 혜심이 이를 사양하고 지리산으로 은거해 버린다. 그로부터 2년 후 보조국사 지눌이 수선사에서 입적하자 국왕은 혜심에게 수선사에 주석하도록 한다.

<sup>9</sup> 塔碑의 건립 시기를 알려주는 비문의 기록이 撰者에 의하여 비문이 撰해진 시기인지, 書者에 의하여 비문이 쓰인 시기인지, 刻者에 의하여 비문이 刻字된 시기인지, 모든 건립 공사가 마무리된 시기인지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여러 정황과 당대의 탐비 건립 절차 등으로 보아 撰者에 의하여 비문이 撰해진 시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 표 1 〉 普照國師 知訥의 주요 행적<sup>10</sup>

연대	나이	왕대	주요 행적과 甘露塔과 甘露塔碑의 건립
1158	1	毅宗 12	黃海道瑞興郡(京西의 洞州)에서 출생(父名鄭光遇, 母親은開興郡夫人)
1165	8	毅宗 19	閻崛山派의 宗暉禪師에게 출가
1165-1182			출가 후 곧바로 具足戒 받음 25세까지의 행적은 알 수 없으나 전국을 유람하며 수행한 것으로 보임
1182	25	明宗 12	大選考試에 합격 昌平淸源寺에 주석(淸源사에서 六祖壇經을 보다가 頓悟) 開京 普濟寺에서 열린 談禪法會에 참석(법회가 끝나고 동학 10여명과 함께 定慧를 雙修하자고 結社 약속, 그러나 결사를 이루지 못하고 후일을 기약함)
1185	28	明宗 15	下柯山 普門寺(경북 예천 소재)으로 옮겨 주석하다가 대장경을 열람하며 『華嚴經』을 읽고 크게 깨달음(보문사에서 3년 동안 주석)
1188	31	明宗 18	八公山 居祖寺에 주석하고 있는 得才스님이 정진하자고 청하여 거조사로 가서 수행(거조사에서 수행하며 修禪結社 시작)
1190	33	明宗 20	結社의 취지를 밝히는 『定慧結社文』을 지어 반포하고 동참 촉구
1198	41	神宗 1	1196년 최씨 무인정권이 들어서자 1198년 禪客 몇 사람과 함께 지리산 上無住庵에 주석하고 숨어 살면서 수행(大慧普覺禪師의 語錄인 『大慧語錄』을 읽고 크게 깨달음)
1200	43	神宗 3	松廣山 吉祥寺로 옮겨 11년간 주석(많은 문도들이 운집) 山名을 曹溪山, 寺名을 定慧寺로 고침
1200-1203			吉祥寺에서 출가하는 문도들에게 『金剛經』, 『六祖壇經』, 『華嚴論』, 『大慧語錄』 등을 강설 吉祥寺에 주석하며 億賣山 白雲精舍, 積翠庵, 瑞石山의 圭峯蘭若, 祖月庵 등을 창건하고 왕래하면서 수행 정진함
1203	46	神宗 6	慧謚이 知訥의 문하로 입산 출가
1205	48	熙宗 1	熙宗은 왕위에 오르자 松廣山 吉祥寺(定慧寺)를 王命에 의해 曹溪山 修禪社로 개칭하고 친필로 쓴 현판과 滿繡袈裟 한 벌을 내림
1210	53	熙宗 6	2월에 母親을 천도하기 위하여 법회를 개최함 3월 20일 병을 보이고, 3월 27일 문도들을 모아 놓고 마지막 설법을 하고 法床에 앉아 입적(俗臘 53, 僧臘 36) 문도들이 향과 꽃 등으로 7일간 유체에 공양함 다비 후 유골을 수습하니 大舍利 30과와 무수한 小舍利가 나옴 修禪社의 북쪽 기슭에 舍利塔을 세움 국왕이 부음을 듣고 謚號를 '佛日普照國師', 塔號를 '甘露'라 내림
1211		熙宗 7	사법계자인 慧謚 등이 보조국사의 행적을 모아 국왕에게 올리고 塔碑를 세워줄 것을 주청함 국왕이 金君綵에게 명하여 塔碑文을 찬하게 함 12월에 殿前 賣昌이 비문을 새김
1213		康宗 2	4월 內侍 昌樂宮 錄事 金振이 왕명을 받들어 塔碑를 세움

<sup>10</sup> 普照國師 知訥의 주요 행적은 아래의 책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李智冠 譯註,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 4,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7.)

이와 같이 건립된 甘露塔은 오랫동안 원위치에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조선시대 들어와 여러 번 옮겨 다니는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먼저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시기에 普照庵 뒷편 기슭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는 보조암이 보조국사 지눌에 의하여 창건되었고, 살아생전 인연이 깊었던 암자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1477년 4월 27일 六正스님에 의하여 다시 처음 건립된 위치로 移建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후기인 1687년 3월 6일 海文老宿이 대중과 협의하여 고봉등(현 浮屠庵 浮屠群 普照國師碑 뒤쪽)으로 옮긴다. 당시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堪輿家들의 견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다가 1723년 4월 16일 住持起仁 등이 대중과 협의하여 다시 최초 건립된 위치로 옮겼는데, 1765년 3월 19일 住持昌悟 등이 재차 고봉등으로 이군한다. 역시 감여가들의 의견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후 1770년 11월 12일 住持勝鑑 등이 다시 최초 건립된 위치로 보이는 현위치로 옮긴 후, 오늘날 까지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sup>11</sup> 이처럼 감로탑이 여러 번 옮겨 다녔다는 것은 순천 송광사에서 보조국사 지눌의 위상이 높았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감로탑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5월 13일부터 8월 27일까지 住持栗庵贊儀 등이 전면적인 해체와 수리를 진행하였다.<sup>12</sup> 1926년 9월 3일에는 普照國師의 舍利具로 보이는 剝地粉靑항아리가 공개되었으며, 1926년 9월 18일 사리구를 다시 넣고 封塔하였고, 1926년 10월 6일 舍利塔 복원 공사가 준공되었다고 한다.<sup>13</sup> 당시 감로탑 기단부의 하단을 새롭게 보강하였다고 한다. 다음 해인 1927년 10월에는 사리탑 해체 복원에 따른 정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改修記碑가 감로탑 옆에 건립되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도 6~8)<sup>14</sup>

<sup>11</sup> 林綺山編, 앞의 책, 참고.

송광사 보조국사 감로탑의 이군 시기 등은 송광사 고경 관장 스님의 정리한 글을 참고하였다.

<sup>12</sup> 조명제, 『역주 조계산송광사사고 인물부』(혜안, 2007), p. 335.

1926년 8월 27일 甘露塔이 해체되었다. 해체 당시 사리구가 발견되어 說法殿에 임시 봉안하였다고 한다.

<sup>13</sup> 甘露塔 주변 정비 복원 당시 사리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30단으로 축조하였는데, 이는 보조국사 지눌의 사리 30과가 수습된 것을 상징한 것이라고 한다.

<sup>14</sup> 1927년 10월 건립된 「佛日普照國師甘露塔改修記碑」는 篆書는 姜滄 吳世昌이 쓰고, 碑文은 錦溟스님이 지었으며, 春谷스님이 글씨를 썼다.



도3 송광사 보조국사 감로탑  
(2009년 촬영 전체 높이  
2.65m)



도4 송광사보조국사진영



도5 송광사 보조국사 감로탑비(2009  
년촬영)



도6 송광사보조국사감로탑改  
修記碑 앞면 탁본(2009년  
촬영)



도7 송광사 보조국사 감로탑改修  
記碑후면 탁본(2009년촬영)



도 8 송광사보조국사감로탑과改修記碑 전경(1930년대 엽서)

또한 감로탑과 한 쌍으로 건립된 甘露塔碑는 1213년 4월 祖師堂 앞에 세워진 이후 1592년 임진왜란 때까지 잘 보존되고 있었다. 그런데 사찰에 전해지고 있는 여러 사적기에 의하면, 1597년 丁酉再亂을 거치면서 파괴되었다고 한다. 당시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를 크게 침탈했던 왜군들에 의한 인위적인 파괴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이 栢庵大師 性聰(1631.11~1700.07)이 기록한 감로탑비의 陰記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정유재란으로 감로탑비가 크게 파괴되자, 翠微大師 守初(1590.06~1668.06)가 발의하여, 당시 송광사 승려였던 雪明이 일을 맡아, 湖西地方에서 인부를 모집하여, 嶺南 昆陽縣에서 2개의 돌을 구해와 1678년 10월 감로탑비를 중건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탑비문은 고려시대 金君綵가 쓴 원래의 비문을 첨삭 보완하여, 崔致翁에게 글씨를 쓰게 하고, 崔侃에게 篆書를 쓰게 하여 1678년 10월 說法殿 階段 앞에 다시 세웠다고 한다. 또한 감로탑비 중건 시에 龜趺는 옛 것을 쓰고, 碑身과 螭首는 멀리서 구해 온 돌로 새롭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감로탑비의 비문 음기에 탑비의 파손 시기와 중건 경위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어, 그 내력을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sup>15</sup> 한편 松廣寺에 남아있는 「修禪社形止記」에는 甘露塔碑가 祖師堂 앞에 靑石碑로 건립되어 있었다고 수록되어 있다.<sup>16</sup>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감로탑비가 원래는 경내의 祖師堂 앞에 건립되

<sup>15</sup> 이러한 내용이 송광사 주지를 역임했던 綺山스님(1892-1968)이 1965년 편찬한 「曹溪山松廣寺誌」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

<sup>16</sup> 「塔碑 祖師堂前靑石碑臺座碑文曹溪山修禪社普照國師碑銘 金君綵宣撰神虎衛口臣 柳伸奉宣書」 「修禪社形止記」, 林綺山編, 앞의 책(1965), 참고.

어 있었으며, 碑身은 당시 상당히 고급스러운 재료로 인식된 靑石이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취미대사의 발의로 1678년 10월 감로탑비를 중건할 때는 최초 건립되었던 원래의 위치에 세웠으며, 그 위치가 당시 說法殿에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감로탑비의 위치를 설법전을 기준하여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1687년 3월 海文 老宿이 대중과 협의하여 甘露塔과 甘露塔碑를 고봉등으로 옮겼다고 한다.(<표-2>)

이와 같이 寺中에 전해지는 내용과 관련 기록들을 종합할 때, 甘露塔은 1210년 3월 27일 보조국사 지눌이 입적한 직후에 초건되어 조선후기에 들어와 여러 번 옮겨지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은 최초의 위치에 세워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甘露塔碑는 1213년 4월 송광사 祖師堂 앞에 初建되었는데, 정유재란으로 비신과 이수가 심하게 파손되자 1678년 10월 옛 龜趺를 재활용하여 원래의 위치에 탑비를 중건했다. 이후 감로탑비는 1687년 3월 고등봉으로 불린 부도암 부도군의 현재 위치로 옮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감로탑과 탑비를 여러 번 이 건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당시 풍수지리의 성행과 함께 특정한 공간에 부도군을 조성하는 전통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표 2 〉 甘露塔과 甘露塔碑의 내력

시 기	내 용	비 고
1210.03.27	普照國師知訥입적 입적 직후 甘露塔 건립	현 靈山殿 뒤편에 初建
1213.04	甘露塔碑 안공	靑石碑, 祖師堂 앞
?	甘露塔 普照庵으로 移建	
1477.04.27	甘露塔 初建 위치로 移建	六正스님
1597	甘露塔碑의 碑身과 螭首 파손	丁酉再亂
1678.10	舊 龜趺에 新 碑身과 新 螭首 중건	翠微大師 守初가 발의
1687.03.06	高峰等으로 甘露塔과 甘露塔碑 移建	海文老宿(堪輿家 의견)
1723.04.16	甘露塔만 初建 위치로 移建	住持起仁
1765.03.19	甘露塔 浮屠庵 옆 高峰等으로 移建	住持昌悟(堪輿家 의견)
1770.11.12	甘露塔 初建 위치로 移建	住持勝鑑
1926.05.13.-08.27	甘露塔 해체 주변 정비	住持栗庵 등
1926.09.03	甘露塔 출토 舍利具 공개	
1926.09.18	甘露塔 舍利具 再奉安	
1926.10.06	甘露塔 해체 보수 공사 준공	기단 하부 부재 보강
1927.10	甘露塔 해체 보수 공사 改修記碑 건립	

### Ⅲ. 甘露塔과 甘露塔碑의 조영 기법과 양식

#### 1. 甘露塔

甘露塔은 여러 번 옮겨 다니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일제강점기인 1926년 전면적인 해체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감로탑은 한국 승탑 양식사에서서는 보기 드문 독특한 치석 수법과 양식을 함유하고 있으며, 어느 시기에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부재들도 있어,<sup>17</sup> 후대에 새롭게 재건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sup>18</sup> 그런데 1926년 감로탑의 전면적인 해체 보수 공사 이전에 촬영된 유리건판 사진과 공사 이후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기단 하부의 1단만이 새롭게 조영되어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도 9, 10) 따라서 그 이상의 부재들은 초건 당시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도9 송광사 보조국사 감로탑의 수리 이전 모습(1926년 이전, 유리건판사진)



도10 송광사보조국사감로탑의 수리 직후 모습(1928년 8월경, 유리건판사진)



도11 송광사 보조국사 감로탑 출토 剝地粉靑항아리사리구

<sup>17</sup> 藤島亥治郎, 『朝鮮美術史論4』, 『建築雜誌』, 1930年7月號, (『朝鮮建築史論』, 景仁文化社, 1980. 재수록)

<sup>18</sup> 野守健, 『三島手の年代考察』, 『考古學』, 第8卷 第5號, (東京考古學會, 1937), pp. 236-246; 順天大學校 博物館, 『順天市の佛教文化遺蹟』, 『順天市の文化遺蹟Ⅱ』(순천대학교 박물관, 2000), p. 194.

그리고 1926년 감로탑 해체 보수 공사 당시 승탑의 구조나 조영 기법 상 굳이 필요치 않은 데, 어떤 이유로 기단 하부에 1단의 가구식 기단을 새롭게 추가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 다만 해체 보수 과정 중 감로탑에서 剝地粉靑항아리로 제작된 솥利具가 출토되었다.(도 11) 한국 승려들의 장례법과 승탑 건립에 따른 조영 기법 등을 고려할 때 당시 감로탑을 수리하기 위하여 해체하는 과정 중 지하에서 사리구가 출토 수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리구는 1926년 9월 3일 공개된 이후, 9월 18일 재봉안되었다. 당시 관련 기록이나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필자의 추론으로는 감로탑에서 출토된 사리구의 크기가 비교적 커서 별도의 시설물을 마련하여 사리구를 봉안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차선책으로 현재와 같은 기단부를 높게 추가 설치하고, 그 내부에 사리구를 봉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甘露塔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고 있는 고기와 연꽃 문양이 함께 어우러진 剝地粉靑항아리로 구성된 솥利具는 항아리의 기법이나 양식 등으로 보아 조선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剝地粉靑항아리의 제작 시기는 탑비문에 기록된 감로탑의 초건 시기와 어울리지 않고 있다.<sup>19</sup> 그래서 이 사리구의 출토로 감로탑이 조선초기에 새롭게 중건된 것으로도 추정되었다.<sup>20</sup> 그런데 剝地粉靑항아리가 감로탑의 사리구로 활용된 것과 관련하여 확실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감로탑이 조선시대 들어와 여러 번 이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甘露塔은 初建된 위치에서 어느 시기에 普照庵으로 옮겨졌다가, 조선시대 들어와 1477년 4월 27일 六正스님에 의하여 원래의 위치로 이진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이유로 새롭게 제작된 剝地粉靑항아리를 사용하여 사리구로 봉안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상태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이진하는 과정에서 보조국사 지눌의 유골이나 사리를 새로운 용기에 봉안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sup>19</sup> 그동안 이 항아리는 高峯和尚塔에서 출토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다. 그 이유는 이 항아리가 소개된 책자의 캡션이 ‘粉靑剝地蓮魚文高峯和尚骨壺, 朝鮮, 1430年以前(全南昇州郡松光面新坪里松廣寺普照國師甘露塔出土)’라고 되어 있어 앞뒤가 잘못되어 있으며, 제작 시기도 松廣寺 高峯和尚塔과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고봉화상탑이 공식적으로 해체 보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봉화상탑에서 이러한 사리구가 출토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고봉화상탑에서 출토된 것으로 확실시되는 별도의 粉靑沙器盒과 靑銅盒이 오늘날까지 송광사에 유존되어 있다(송광사 성보박물관, 『國師』, 보조국사 지눌스님 열반 800주기 기념 고려불교문화재전 특별전 도록, 2010). 한편 그동안 이 사리구가 조선초기에 들어와 普照國師 甘露塔이진 시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간과하여 왔다.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1926년 9월 18일 재봉안되어 사진으로만 전하고 있는 剝地粉靑항아리로 제작된 사리구는 조선초기에 甘露塔을 이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sup>20</sup> 野守健, 앞의 논문, pp. 240-245.

리고 그 이후에도 감로탑이 여러 번 이견되었지만 사리구가 파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로탑과 함께 옮겨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1926년 해체 시 초건 시기와 어울리지 않는 박지분 청향아리가 수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향후 감로탑의 해체 등을 통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甘露塔은 사찰의 중심 축선을 기준하여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塔碑文에 기록된 방향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최초 건립된 후 堪輿家들의 의견에 따라 浮屠庵 浮屠群을 비롯하여 다른 장소로도 여러 번 移建되기는 했지만, 결국 최초 건립 당시의 원위치로 옮겨졌다고 하는 기록들로 보아 현재의 위치가 초건된 원위치일 것으로 보인다.

감로탑의 양식은 크게 기단부·탑신부·상륜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기단부 평면은 사각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석탑의 기단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각각의 부재들을 치석 결구하였다. 감로탑 이전에 건립된 부도들은 대부분 평면이 팔각형이었는데, 감로탑은 보기 드물게 사각형을 적용하였다. 현재의 기단부는 지면 위에 사각형 지대석을 마련하여, 그 위에 석탑의 면석부와 같이 지대석 상면 안쪽으로 너비가 좁은 대석을 올려 결구하였다.(도 12) 대석 상부는 갑석처럼 튀어나오도록 한 사각형 부재를 결구하였는데, 외곽부는 弧形으로 부드럽게 깎았다. 그런데 이 부재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26년 감로탑의 전면적인 해체 보수공사 시에 새롭게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단부의 상부에는 塔身石을 받치기 위하여 한 돌로 제작된 사각형 대석을 3단으로 마련하였는데, 상부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게 치석하였다. 3단 중에서 하단은 모서리를 角지게 깎은 사각형 대석으로 1926년 보수 이전에는 지대석 역할을 했던 부재였다. 하단 위에는 약하게 경사를 이루며 弧形으로 치석된 중단을 올렸는데, 그 표면에 연화문을 장식하였다. 중단의 연화대석은 평면이 사각을 이루고 있으며, 그 표면에 4엽으로 구성된 연화문을 좌우로 나란히 배치하고, 좌우 가장자리에는 반엽씩 새겨, 모서리마다 1엽의 연화문이 직각으로 꺾이면서 표현되도록 했다. 연화문은 상하로 길쭉한 형태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연화문의 끝에는 간엽을 추가 장식하였다.(도 13) 이처럼 연화문은 표면에 별다른 장식이 없어 전체적으로 간략한 기법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연화대석 상부에는 사각형 탑신괴임을 비교적 높게 마련한 상단을 마련하였다. 상단을 구성하고 있는 탑신괴임은 상부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게 하여 탑신석 하부에 돌출된 원형의 받침부와 결구되도록 정교하게 치석하였다. 이와 같이 감로탑은 기단부가 3단의 대석을 올린 형식으로 그 표면에 연화문 외에는 별다른 장식적 표현이 없으며, 각각의 부재를 간략하게 치석하여 결구하였다.

감로탑의 塔身部는 상당히 보기 드문 독특한 치석과 결구수법을 보이고 있다.(도 15) 먼저 塔身石은 하부에 낮은 괴임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인 외관이나 이미지는 원형을



도 12 감로탑의기단부(2009년 촬영)



도 13 감로탑기단부의 연화문 탁본(2009년 촬영)

이루고 있지만 모서리마다 돌을대로 角을 주어 세부적인 평면은 팔각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탑신석 상부에는 구조나 치석 기법 상 구현하기 어려운 별도의 낮은 괴임대를 마련하여 옥개석 하부와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감로탑의 탑신부는 한국 승탑 양식사에서 일반적이었던 八角堂形이라기 보다는 圓球形에 가까운 양식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원구형 탑신석은 감로탑 이전인 11세기경을 전후한 시기에 건립된 淨土寺 弘法國師 實相塔에서 적용된 보기 드문 기법이었다.(도 14) 그런데 신라와 고려 초기 건립된 승탑들이 전체적으로 팔각당형을 채용하면서 각 승탑마다 독특한 치석과 결구 수법이 적용되었는데, 감로탑처럼 보기 드문 탑신석 양식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 감로탑처럼 탑신석을 원구형으로 마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선후기의 승탑 양식에서 많이 채용되었으며, 이러한 측면 때문에 감로탑이 초건 당시의 모습과 부재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장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감로탑의 屋蓋石은 기단부나 탑신석과는 달리 평면이 팔각형을 이루도록 했다. 옥개석 하부의 처마부에 별도의 옥개받침은 표현되지 않았지만 처마부가 부드럽게 弧形을



도 14 정토사 흥법국사 실상탑의 탑신석(2016년 촬영)



도 15 송광사 보조국사 감로탑의 탑신석(2009년 촬영)



도 16 감로탑의 옥개석과 상륜부도(2009년 촬영)



도 17 감로탑의 상륜부(2009년 촬영)

그리면서 높게 치켜 올라가도록 치석하였다. 그래서 감로탑은 전체적인 외관이 경직된 인상 보다는 전체적으로 경쾌하면서도 율동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신라와 고려초기 건립된 대부분의 승탑은 옥개석의 처마부가 수평을 유지하거나 살짝만 치켜 올렸다. 감로탑의 옥개석 하부는 이들과 다르게 치켜 올린 각이 커서 다소 과장된 느낌도 주고 있다. 그리고 낙수면 마루 끝의 합각부도 곡선형으로 살짝 들어 올렸다. 반면 낙수면은 각 면이 완만한 경사로 부드럽게 곡선형을 이루면서 처마 쪽으로 내려가도록 치석하였으며, 낙수면의 합각부는 돌을 띠처럼 살짝 돌출시켜 마루부임을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마루부 끝에는 귀꽃이나 다른 장식은 하지 않았다. 相輪部는 한 돌로 치석하였는데, 하부에는 伏蓮紋이 장식된 露盤을 마련하고, 그 위에 모서리를 角지게 치석한 팔각형의 寶輪形 받침대 1단을 올렸다. 정상부에 마련된 보주의 하부는 연화문을 연주문처럼 원형으로 표현하였으며, 그 위에는 연화문이 반치고 있는 듯한 형상으로 蓮峰形 보주를 올려 마무리하였다. 보주 표면도 모서리마다 약하게 角을 주어 전체적인 평면이 팔각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옥개석과 상륜부는 전체적으로 간략하면서도 정연한 치석 수법이 적용되었는데, 옥개석의 처마부는 높게 치켜 올려 감로탑의 전체적인 외관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2. 甘露塔碑

현재 감로탑비는 송광사 浮屠庵 浮屠群의 제일 상단에 松廣寺 事蹟碑와 함께 좌우로 나란히 세워져 있으며, 비신 상부에 篆書로 ‘普照國師碑銘’이라고 새겨져 있다. 그런데 이 비는 원래 甘露塔과 한 쌍으로 건립된 塔碑 성격으로 1213년 4월 송광사의 祖師堂 앞에 初建되었는데, 조선시대 정유재란으로 심하게 파손되자, 송광사의 문도들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龜趺는 재활용하고, 碑身과 螭首는 새롭게 제작하여 1678년 10월 중건한 것이다. 이러한 감로탑비는 오래전부터 부도군 제일 상단의 한가운데로 옮겨진 이후 송광사 사적비와 함께 나란히 위치하고 있어, 송광사에서는 가장 상징성이 높은 석비로 인식되어 왔다.



도 18 송광사 부도암 부도군 정비 이전 보조국사 감로탑비 전경(1926년경, 유리건판사진)



도 19 송광사 부도암 부도군 정비 이후 보조국사 감로탑비 전경(1928년경, 유리건판사진)



도 20 송광사 보조국사 감로탑비 전경(2009년 촬영 전체높이 3.94m)

甘露塔碑는 일반적인 석비 양식으로 크게 龜趺 碑身 螭首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부재를 한 돌로 치석 결구하였다. 碑文 陰記에 의하면, 감로탑비의 부재 중에서 귀부는 원래의 것이지만 비신과 이수(水首)는 정유재란 때 파손되어 1678년 10월 송광사 사적비와 함께 중건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각 부재의 재질과 보존 상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다소 이질적인 조영 기법과 양식 등으로 인하여 육안상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비신을 받치고 있는 龜趺는 하부에 지대석을 마련한 후 그 위에 龜身을 낮게 표현하였으며, 귀신의 사방에는 살짝만 돌출된 발이 표현되었다. 현재 감로탑비의 귀부에 표현된 발은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 보다는 정적인 모습으로 형식화의 경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귀두의 목줄기는 다소 짧지만 직립형으로 표현되었으며, 앞면에는 좌우로 일정한 너비를 구획한 후 그 안에 상하로 주름문을 반복 표현하였다. 이러한 목줄기의 표현 기법은 신라와 고려시대 귀부에서도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어, 감로탑이 이전의 기법을 채용했음을 알 수 있다. 龜頭는 머리를 약간 앞으로 내밀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전체적으로 다소 경직된 인상을 주고 있다. 다만 코가 높게 돌출되어 있고,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있어 다소나마 생동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감로탑의 귀두는 신라나 고려초기의 귀두에서 보이는 볼륨감 있고 역동적인 조각 기법보다는 다소 경직되고 형식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네 발을 살짝만 돌출시켰으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고, 귀를 작게 표현하였으며, 입 좌우로 길게 펼쳐지는 갈퀴형 문양이 상대적으로 짧은 측면 등은 간략화의 경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귀갑을 감싸고 있는 龜甲帶는 별도의 돌을 대처럼 龜身에서 높게 돌출되도록 하여 龜身과 龜甲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하였다. 귀갑대의 표면에 별다른 문양을 새기지는 않았다. 귀갑의 표면에는 1조의 음각선을 활용하여 6각형으로 구획한 후, 그 안에 다시 1조의 돌을대를 6각형으로 돌린 龜甲紋을 귀갑 전면에 걸쳐 가득 표현하였다. 碑座는 귀부의 상단 중앙에 좌우로 긴 사각 형태인데, 상부를 甲石形으로 처리한 넓은 받침대를 두었다. 그리고 비좌 상면에 연화문과 낮은 괴임대를 마련하였으며, 비신은 하단부에 시공된 축이 비신홈에 삽입 고정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감로탑비의 龜趺는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고, 龜頭의 형상이 신라와 고려 초기에 조성된 귀두에 비하여 역동성이나 생동감이 다소 떨어지고, 碑座도 간략하게 마련되었다. 그리고 龜趺 후미의 龜甲帶 모양이 전체적으로 반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귀갑문도 마름모 형태로 길게 표현되었다. 이러한 조각 기법은 고려 초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난 간략화의 경향이 반영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귀부 양식사에서 신라와 고려 초기에 제작된 귀부는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형상으로 조각되며, 다소 과장된 듯한 느낌마저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고려 초기를 지나 11세기 후반경 부터는 서서히 귀부의 전체적인 규모가 작아지고, 전반적인 비례와 정연함이 다소 떨어지며, 세부적으로 섬세했던 조각 기법이 다소 이완되는 등의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浮石寺 圓融國師碑(1054년)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형식화와 간략화의 경향은 지속된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칠곡 선봉사 대각국사비(1137.08), 묘향산 보현사비(1141), 용인 서봉사 현오국사 탑비(1185.02), 예천 용

문사 중수기비(1185) 등처럼 귀부가 아닌 사각형 비좌만을 마련하여 비신을 받치기도 한다. 이처럼 고려 초기를 거쳐 중기를 지나면서 나타난 귀부 양식의 변화를 고려할 때, 현존하는 감로탑비의 귀부는 영동 寧國寺 圓覺國師塔碑(1180), 포항 寶鏡寺 圓眞國師塔碑(1224.05) 등 12~13세기대에 조성된 귀부들과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도 25, 26)

그리고 비문은 비신의 앞뒷면에 음각되었는데, 첫머리에楷書로 ‘海東朝鮮國湖南順天府曹溪山松廣寺贈諡佛日普照國師碑銘 并序’라고 하여 보조국사 지눌의 행적을 기록한 석비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비문 말미에는 ‘崇禎紀元戊辰五十一年戊午十月日 重建沙門雪明’이라고 하여, 1678년 10월에 雪明 등에 의하여 중건되었음을 전해주고 있다. 또한 碑陰에는 감로탑비를 새롭게 중건하게 된 배경과 간단한 내력, 참여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도 21 송광사 보조국사 감로탑비의 귀부 측면(1926년경, 유리건판사진)



도 22 송광사 보조국사 감로탑비의 귀부 측면(2009년 촬영)



도 23 송광사 보조국사 감로탑비의 귀부 정측면(2009년 촬영)



도 24 감로탑비의 撰者, 書者, 篆者가 새겨진 비신 하부(2009년 촬영)



도 25 영동 寧國寺 圓覺國師 塔碑(1180년, 2006년 촬영)



도 26 포항 寶鏡寺 圓真國師 塔碑(1224년 5월, 2010년 촬영)

감로탑비의 螭首部는 하부에 2단으로 괴임을 마련한 후, 일정한 높이의 瑞雲紋을 사각형으로 표현하여 받침대로 삼았으며, 그 위에 雲龍紋을 가득 조각하였다.(도 27, 28) 이수부의 앞면에는 좌우에서 각각 1마리의 용이 서기를 내뿜으며 가운데를 향하도록 했고, 측면은 각각 1마리의 용이 입을 굳게 다물고 돌출된 상태로 바깥쪽을 향하도록 조각하였다. 그리고 이수부 뒷면에는 한가운데에 2마리의 용이 좌우로 나란히 배치되어 후방을 향하고 있다. 이처럼 이수부에는 위치를 달리하여 총 6마리의 용이 조각되었는데, 2마리가 한 쌍을 이루도록 하여 전체적으로는 통일성 있게 배치하였다. 이처럼 이수 상부에 조각된 용들은 바깥쪽을 향하거나 보주를 받치고 있어 탑비에 대한 수호의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감로탑비의 이수부는 신라와 고려초기에 제작된 이수부처럼 규모가 크지도 않고, 용과 구름의

조각이나 표현 기법도 유사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선후기에 들어와 석비의 건립이 일반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士大夫家 묘역에 세워진 神道碑나 墓碑에서 유행한 이수부들과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인지 甘露塔碑의 이수부는 부안 高弘建 神道碑(1668.02)나 함양 鄭一蠹 神道碑(1689.03) 등과 닮아 있다.(도 31, 32) 특히, 감로탑비는 부도군 상단부에 나란히 세워진 송광사 사적비의 이수부와 조각 기법이나 세부적인 문양 등이 상통하고 있다.(도 29, 30) 비문에 의하면, 두 석비는 동시기에 함께 건립되었는데, 서로 성격이 다르다 보니 양식적으로 친연성은 있지만 약간 다른 이수부를 적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도 27 감로탑비의 이수부 정면(2009년 촬영)



도 28 감로탑비의 이수부 후면(2009년 촬영)



도 29 송광사 사적비의 이수부 정면(2010년 촬영)



도 30 송광사 사적비의 이수부 후면(2010년 촬영)



도 31 부안 高弘建 신도비(1668년 2월, 2012년 촬영)



도 32 함양 鄭一蠡 신도비(1689년 3월, 2017년 촬영)

#### IV. 甘露塔과 甘露塔碑의 특징과 미술사적 의의

신라시대 산청 단속사에 머물렀던 神行禪師(704~779.10.21)와 양양 진전사로 은거했던 道義國師 이후 禪宗의 본격적인 유입과 성행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山門이 형성되었고, 대표적인 산문을 중심으로 開山祖나 유력한 고승들을 추모하고 사찰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선양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僧塔과 塔碑를 건립하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sup>21</sup> 북종선을 대표하는 신행선사는 관련 비문에 의하면, 779년 단속사에서 입적한 지 36년이 지난 813년경에 影幀을 그려 모시고 浮圖(僧塔)를 세워 사리를 봉안했다고 한다. 또한 남종선을 대표하는 道義國師의 경우도 설악산 진전사에서 입적하자 승탑과 탑비를 건립해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문화는 고대 인도와 중국 등 불교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승탑은 살아생전 유력하게 활동하다가 입적한 승려를 위한 墓塔의 性格을 갖는 조형물로 기본적으로는 유골이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물로서의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적 직후에 건립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동시에 승탑은 山門이나 당대 불교계를 대표한 최고의 승려에 대한 예우적이고 기념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승탑은 입적한 스님의 제자들과 檀越들에게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최고의 정성이 들어가기 마련이었다. 또한 塔碑는 승탑과 한 쌍으로 건립된 조형물로 승탑을 세운 이후에 주인공의 살아생전 행적을 추모하고, 그러한 행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기 위한 기념적인 성격의 석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승탑과 탑비는 살아생전에 王師나 國師를 역임하였거나 그러한 지

21 鄭永鎬, 『新羅 石造浮屠 研究』(신흥사, 1974), pp.13-17.

위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았던 승려들을 중심으로 건립해 주었다. 당시 승탑과 탑비의 건립은 國王의 允許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으며, 문도들의 결집과 주도, 왕실 차원의 지원, 국왕에 의한 諡號와 塔號 下賜, 당대 최고 문장가의 비문 찬술 등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진행된 사업이자 중요 佛事였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國是로 채택되고 불교 신앙과 의례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이를 맡는 僧錄司가 설치되어 정부 차원의 지원과 시스템에 의하여 승탑과 탑비의 건립이 시행되었다.<sup>22</sup>

현재 후삼국시기를 포함하여 신라시대 건립된 승탑과 탑비는 파손된 것을 포함하여 대략적으로 20여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 지역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알 수는 없지만 고려시대 승탑은 대략적으로 80여기, 탑비는 60여기 정도가 유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에서 관련 기록과 여러 정황 등으로 주인공을 알 수 있는 경우는 50여기 정도이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왕사나 국사에 책봉되었던 승려가 200여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러한 지위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았던 상당수의 승려들도 승탑이 건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존하는 수량보다 훨씬 더 많은 승탑이 건립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불교계가 크게 위축되었던 조선전기에는 20여기, 불교가 다시 부흥했던 조선 후기에는 승탑의 건립이 일정한 자격 요건보다 死後 墓塔의 성격으로 변화되면서 전국에 걸쳐 상당량의 승탑이 건립되었다. 현재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북한 지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조선후기에 건립된 승탑이 대략적으로 2,500여기 정도가 전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23</sup> 이처럼 한국 불교미술사에서 승탑은 신라 이후 조선시대까지 상당한 수량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조영 기법과 양식 등에 따라 승탑들을 세분화할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 한국 승탑의 양식은 크게 八角堂形, 圓球形, 石鍾形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신라와 고려시대 건립된 대부분의 승탑들은 이러한 양식의 범주 안에 있다. 특히, 신라말기에서 고려초기까지 건립된 부도들은 전형적인 팔각당형 양식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고려초기를 지나면서 일부 승탑들의 조영 기법이나 양식이 부분적으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香垵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한 實相寺 片雲和尚 浮屠(도 33),<sup>24</sup> 탑신석을 圓球形으로 치석한 淨土寺 弘法國師 實相塔(도 34) 등을 들 수 있다.<sup>25</sup> 그리고 승탑

<sup>22</sup> 엄기표,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학연문화사, 2003), p. 508.

<sup>23</sup> 엄기표, 「조선전기 浮屠의 건립 현황과 미술사적 의의」, 『佛敎學報』86(2019), pp. 135-168.

<sup>24</sup> 엄기표, 「實相寺 片雲和尚 浮屠의 銘文과 樣式에 대한 고찰」, 『全北史學』49(2016), pp. 27-60.

<sup>25</sup> 蘇在龜, 「新羅下代와 高麗時代 僧塔研究」(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1), pp. 24-89.

의 전체적인 조영 기법이나 양식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세부적으로 치석이나 결구수법 등도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고려전기라 할 수 있는 11세기 중후반경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12~13세기대에는 저변이 넓게 확대되어 가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조영 기법과 양식이 적용된 승탑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그러한 양식의 승탑들이 일정한 지역이나 사찰을 중심으로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고려 중후기에는 새로운 조영 기법과 양식의 승탑들이 다수 건립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조국사가 입적한 1210년 3월 27일 직후에 건립된 송광사 보조국사 감로탑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조영 기법과 양식을 보이고 있어, 고려시대 승탑 양식 변화의 선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 33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부도(2006년 촬영)



도 34 정토사 흥법국사 실상탑(2016년 촬영)

그리고 감로탑은 신라 말기 이후에 건립된 팔각당형 양식을 부분적으로는 채용하였지만 기단부를 구성하고 있는 부재들의 치석과 결구수법이 간략화되었으며, 탑신석을 圓球形에 가깝도록 치석하였고, 옥개석이 팔각형이지만 처마부를 높게 치켜 올려 독특하게 마련하였으며, 상륜부도 상당 부분 간략화시켜 이전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조영 기법과 양식을 적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불교미술사에서 승탑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건립되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의 조영 기법이나 양식을 계승하면서 서서히 변

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보조국사 감로탑은 그러한 추세나 경향에서 상당히 벗어난 독특한 조영 기법과 양식을 함유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감로탑 이전에 세워진 고려시대 승탑들은 대략 40여기 정도가 확인되고 있다. 이 중에서 정토사 홍법국사 실상탑처럼 독특한 조영 기법과 양식의 승탑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라 이래 건립된 전형적인 팔각당형 양식을 채용하였다. 그런데 감로탑 이후에 건립된 승탑들은 기본적으로 팔각당형 양식이 많기는 하지만 치석이나 결구 기법 등에서 변화를 보이거나, 새로운 조영 기법을 채용한 승탑들이 이전에 비하면 많은 양이 건립되어 승탑 양식이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려 초기는 신라 말기의 승탑 양식을 충실하게 계승한 시기였으며, 고려 중후기는 이전과는 다른 다양하고 차별화된 승탑 양식들이 도입 적용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려 중후기는 다양한 조영 기법과 양식의 승탑들이 시기별, 지역별, 사찰별, 장인별로 건립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보조국사 감로탑은 이러한 고려시대 승탑 양식사의 일반적인 양상이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조국사 감로탑은 고려시대 승탑 양식사에서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전환점이자 분기점에 있는 승탑이기는 하지만 전기와 후기를 이어주는 매개 역할은 제한적인 독특한 승탑 양식을 함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려후기 불교계를 리드했던 송광사 출신 16국사의 승탑과 탑비는 대부분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승탑이 9기, 탑비는 4기가 확인되고 있다. 승탑 9기 중에서 1기는 송광사 경내라 할 수 있는 공간에 세워졌고, 나머지 6기는 조계산 일대의 송광사 암자에 건립되어 있으며, 2기는 당시 송광사의 말사라 할 수 있는 보성 大原寺와 영광 佛甲寺에 세워졌다. 이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계산 자락에 있는 송광사의 암자에 승탑과 탑비가 건립되었다. 이러한 곳에 승탑이 세워진 것은 그 주인공이 살아생전 암자를 창건하여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머물렀거나 인연이 깊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初祖였던 普照國師 智訥의 法脈을 계승한다는 의미와 함께 師資相承 관계를 표방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순천 송광사를 중심한 그 주변 암자에 오늘날까지 여러 국사들의 승탑이 전해지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 불교사에서 師資相承이라는 상식적인 측면과 승탑 양식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송광사의 초조였던 감로탑의 조영 기법이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계승하여 승탑을 건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2세부터 송광사 출신 국사들의 승탑은 그렇지 않다. 初祖의 승탑인 甘露塔과 그 이후에 건립된 國師들의 승탑은 조영 기법이나 양식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감로탑은 이후에 건립된 법손들의 승탑과는 차별화된 조영 기법과 양식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존하는

2세 眞覺國師부터 16세 高峯和尚까지의 승탑들은 조영 기법이나 양식이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는 하지만 고려후기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암자에 건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변화 없이 거의 동일한 조영 기법과 양식을 계승하면서 세워졌다. 그래서 송광사 출신 16국사들의 승탑이 하나의 주류 양식을 형성하고 있다.(도 35~43) 이와 같이 1세와 2세 이후의 승탑 양식이 확연하게 구분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필자의 추론으로는 曹溪山 修禪社의 初祖였던 보조국사 지눌에 대한 특별한 인식과 추모, 공양 등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조국사 감로탑은 이전에 건립된 승탑들에 비하여 전체적인 규모가 작아지기도 했지만 승탑의 조영 기법이나 양식이 전반적으로 간략화 되어가는 경향이 반영되었다. 또한 탑신석의 경우 모서리마다 모각을 주어 팔각을 의도하기도 했지만, 승탑의 평면이 기본적으로 기단부는 四角形, 탑신석은 圓形, 옥개석은 八角形, 상륜부는 圓形이 적용되었다. 이처럼 하나의 승탑에서 다양한 평면이 활용된 사례는 흔하지 않다. 그런데 감로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기단부는 사각형의 평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탑신석은 圓球形이고, 옥개석은 八角形으로 마련했다는 점이다. 특히, 평면 사각형으로 마련된 기단부와 원구형 탑신석은 이전에 건립된 승탑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측면으로 동아시아에서 宋代 이후 중국과 일본에서 성행했던 五輪塔의 양식과 친연성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도 35 1세 송광사 보조국사 감로탑  
(2005년 촬영)



도 36 2세 송광사 진각국사 원조탑(2005년 촬영)



도 37 3세 송광사 청진국사 적조탑(2005년 촬영)



도 38 5세 대원사 자진원오국사 정조탑(2005년 촬영)



도 39 6세 송광사 원감국사 보명탑(2005년 촬영)



도 40 7세 송광사 자정국사 묘광탑(2005년 촬영)



도 41 8세 송광사 자각국사 정령탑(2005년 촬영)



도 42 13세 불갑사각진국사 자운탑(2005년 촬영)



도 43 16세 송광사 고봉화사탑(2005년 촬영)

이와 관련하여 고려 穆宗代(997~1009)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淨土寺 弘法國師 實相塔이 탑신석을 圓球形으로 마련하였다. 이 승탑은 보조국사 감로탑보다 100여 년 이전에 세워졌다. 그런데 실상탑과 감로탑은 탑신석이 圓球形이라는 점 외에 기단부, 옥개석, 상륜부 등의 조영 기법이나 양식은 전혀 다르며, 전체적인 외관도 친연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100여 년 후에 건립된 감로탑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정토사 흥법국사 실상탑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다. 감로탑이 부분적으로 실상탑의 특정 부재를 모방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로탑을 설계 시공한 장인은 실상탑을 염두에 두었다기 보다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조영 기법과 양식을 적용하여, 新樣式을 창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두 승탑을 영향 관계에 의한 같은 조영 기법과 양식의 범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甘露塔은 實相塔보다 五輪塔과 양식적으로 더 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보조국사 감로탑은 오륜탑의 시원적인 모습과 함께 양식적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오륜탑 양식이 한국에서는 성행하지 못했다.(도 44~46) 물론 고려말기부터 조선후기에 걸쳐 전국의 여러 사찰에 상당량이 건립된 원구형 양식의 승탑을 한국 나름대로의 오륜탑 양식의 범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地水火風空을 상징하는 5石의 부재들로 구성된 전형적인 오륜탑 양식이 한국에서 유행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필자의 추론으로는 고려시대 들어와 오

륜탑이 유행했던 宋과의 외교 관계와 교류도 있었지만 당시 고려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역학 관계 속에서 遼金元과의 외교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고, 고려는 건국 이후 승록사가 설치되어 승탑과 탑비의 건립을 체계화하는 등 자체적으로 승탑의 조영 기법과 양식이 정형화되어 계승되고 있었으며, 고려는 일반적으로 재가신자들에게 탑을 건립해 주지 않았으며, 조선전기에는 역불승유 정책 기조로 불교계가 위축되면서 승탑의 건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고려시대 건립된 정토사 홍법국사 실상탑과 송광사 보조국사 감로탑은 한국 승탑 양식사에서 팔각당형에서 원구형 또는 석종형 양식으로 발전하는 시원적이고 계기적 양식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주목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한편 조선전기에는 승탑 건립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조선후기에는 전국에 걸쳐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서 조선전기에는 圓球形 양식이 중심을 이루다가 조선후기에는 圓球形과 石鍾形 양식이 주류를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들어와 불교계가 부흥하고, 승탑 건립이 크게 성행하면서 송광사 보조국사 감로탑의 조영 기법이나 양식을 모방하거나 계승한 승탑들이 호남 일대의 일부 사찰에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도 47~50) 대표적으로 송광사 부도암, 강진 백련사, 구례 연곡사, 완도 보길도 부도, 해남 대흥사의 부도군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들 승탑들은 낮고 간략하게 마련된 기단부, 탑신석의 모서리에 약



도 44 중국 國淸寺 七如來塔(현대 재건, 2013년 촬영)



도 45 양주 회암사 선각왕사 승탑(14세기말, 2012년 촬영)



도 46 일본 西大寺 奥院 五輪塔(13세기말, 2018년 촬영)

하게 각을 준 치석 수법, 옥개석의 처마부를 높게 치켜 올린 수법, 보주받침대와 원형의 보주를 올린 간략한 상륜부 등이 감로탑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송광사 부도암에 세워져 있는 無用大師 秀演(1651.03.13.~1719.10.17.)의 승탑은 관련 기록에 의하여 1720년 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sup>26</sup> 기단부터 상륜부까지 감로탑의 조영 기법과 양식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 장인들은 송광사에 건립되어 있는 보조국사 감로탑을 실견하였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승탑 건립 시 감로탑의 조영 기법과 양식 등을 설계와 시공에 반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송광사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소재한 사찰들에 보조국사 감로탑과 유사한 조영 기법과 양식의 승탑들이 전해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보조국사 감로탑의 조영 기법과 양식은 후대에까지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조국사 감로탑비는 감로탑과 한 쌍으로 1213년 4월에 완공되어 약 400여 년 동안 전해지고 있었는데, 1597년 정유재란 때 파손된 것을 송광사 사적비와 함께 1678년 10월 중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감로탑비는 조선후기에 중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신라시대 이래 한국 석비의 전형적인 양식이라 할 수 있는 龜趺-碑身-螭首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은 조선후기에도 석비의 기본적인 양식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조선 사회



도 47 순천 송광사 無用堂塔(1720년, 2005년 촬영)



도 48 구례 연곡사 무명부도(2006년 촬영)



도 49 강진 백련사 무명부도(2009년 촬영)



도 50 해남 대흥사 碧海堂塔(2008년 촬영)

26 엄기표, 「順天 松廣寺의 朝鮮後期 石造浮屠 研究」, 『文化史學』30(2008), p.110.

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건축물을 비롯한 많은 조형물들이 파손되자 조선후기에 들어와 증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중에서 석비의 경우를 보면, 獻陵 神道碑가 임진왜란으로 파손되자 1695년 새롭게 건립되었으며, 강진 白蓮寺에 건립되어 있었던 圓妙國師 中眞塔碑가 임진왜란으로 파손되자 상태가 양호한 龜趺를 재활용하여 그 위에 白蓮寺 事蹟碑를 1688년 세웠으며, 實相寺 秀澈和尚 楞伽寶月塔碑도 임진왜란으로 파손되자 1714년 새롭게 건립되었으며, 개성의 齊陵 神道碑도 임진왜란으로 파손되자 1744년 11월 새롭게 건립되었다. 이처럼 조선후기에는 파손되거나 유실된 석비에 대한 新建이나 重建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상태가 양호한 부재를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감로탑비도 정유재란으로 비신과 이수가 파손되자 龜趺를 재활용하여 그 위에 새롭게 비신과 이수를 올렸는데, 비문은 당대의 찬문 구성에 따랐으며, 이수부도 이전에 있었던 양식을 따르지 않고 조선후기 성행한 양식에 따라 조각하였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에 석비의 重建이나 新建 등을 할 때, 비문의 내용은 원래의 것을 따랐지만, 비문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각 부재들의 제작은 조선 후기의 조영 기법과 양식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선후기에는 옛 것을 재현하거나 복원할 때 당대의 전통과 문화가 더 중시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부분은 오늘날 문화재의 보수 정비와 관련하여 여러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678년 10월 감로탑비의 증건에 관여한 石工으로 劉永立, 劉千金, 劉一立, 劉迨延 등이 기록되어 있다.(도 51) 그런데 석공들의 성씨가 모두 같은 것으로 보아 당시 동일 가계를 중심으로 한 장인 집단이 조직되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아마도 감로탑비는 이들에 의하여 설계와 시공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에 따라 조영 기법과 치석 기술 등이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전수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기록이 비록 조선후기의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전통과 문화를 고려시대까지 소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특정 지역이나 일정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석조물들이 유사한 조영 기법이나 양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지역별, 사찰별, 가계별 등으로 특정 장인 집단이나 조직이 형성되어 있어, 그들에 의하여 석조물의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돌을 다루는 기술이 자연스럽게 전수되



도 51 감로탑비의 후면 石工과 刻字 해당 부분 탁본(2009년 촬영)

있을 것이다. 감로탑비의 기록은 조선후기에 작성된 것이지만 당시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석공들에 대한 인식과 장인 집단의 구성 등에 대하여 짐작해 볼 수 있다.

## V. 결론

순천 松廣寺는 창건된 이후 고려시대 들어와 보조국사 지눌이 주석하면서 크게 발전하였으며, 조선초기까지 16국사가 배출되면서 당대 불교계를 리드했던 사찰이었다. 그리고 송광사를 비롯하여 말사에는 1세였던 보조국사 지눌의 승탑과 탑비를 비롯하여 그의 법을 잇는 여러 국사들의 승탑 등이 건립되었다.

송광사 보조국사 감로탑과 감로탑비는 탑비문에 의하여 1210년과 1213년 4월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초건된 이후 여러 번 옮겨 다니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1926년 감로탑 해체 보수 공사 시에는 하부에서 유골과 사리를 봉안했던 박지분청항아리가 출토되기도 했다. 당시 보고서를 남기지 않아 감로탑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알 수는 없지만 기단 하부를 제외하고는 초건 당시의 모습으로 보인다.

감로탑은 기단부에서 상륜부까지 다양한 평면이 활용되었으며, 탑신석을 원구형으로 마련하는 등 고려시대 승탑 양식사에서는 보기 드문 새로운 조영 기법과 양식이 적용되어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행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일본 등에서 성행했던 오류탑 양식을 부분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성행했던 원구형과 석종형 양식의 시원적이고 계기적인 승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감로탑비는 탑비 성격으로 초건되어 오랜 세월 유존되었으나 정유재란으로 파손되자 1678년 10월 파손이 덜한 기존의 귀부를 재활용하고, 비신과 이수에는 신부재가 추가되어 중건되었다. 그래서 감로탑비는 고려와 조선 후기의 조영 기법과 양식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선후기에는 특정 조형물을 중건할 때 기존의 부재가 재활용되었음을 알려준다.

앞으로 동아시아 불교 국가에서 유행했던 오류탑 양식이 한국에서는 성행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주제어(key words) 송광사(松廣寺), 보조국사(普照國師), 감로탑(甘露塔), 감로탑비(甘露塔碑), 부도(浮屠), 탑비(塔碑)

■ 투고일 2019년 12월 31일 | 심사개시일 2020년 1월 17일 | 심사완료일 2020년 2월 5일 ■

## 참고문헌

### 1. 사료

『曹溪山松廣寺誌』, 林綺山 編, 1965.

『修禪社形止記』.

### 2. 한국어 문헌

고유섭, 『朝鮮塔婆의 研究 下』, 열화당, 2010.

徐惠銀, 「松廣寺 16國師의 石造浮屠 研究」, 순천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順天大學校 博物館, 「順天市의 佛教文化遺蹟」, 『順天市의 文化遺蹟 II』, 2000.

엄기표, 「강진 백련사의 석조미술과 원묘국사의 부도와 탑비」, 『호남문화연구』60, 2016.

\_\_\_\_\_, 「高麗後期 松廣寺 出身 16國師의 石造浮屠 研究」, 『文化史學』29, 2008.

\_\_\_\_\_, 「順天 松廣寺의 朝鮮後期 石造浮屠 研究」, 『文化史學』30, 2008.

\_\_\_\_\_, 「조선전기 浮屠의 건립 현황과 미술사적 의의」, 『佛敎學報』86, 2019.

\_\_\_\_\_,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2003.

李德辰, 「普照知訥의 禪思想 研究 -中國佛敎와 關聯하여-」, 고려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정선중, 「高麗 浮屠銘」, 『불교문화연구』8, 2001.

鄭永鎬, 「住岩댐 水沒地區 美術史分野 調查報告」, 『住岩댐 水沒地區 地表調查報告書』, 全南大學校 博物館, 1985.

조명제 외, 『역주 조계산송광사사고 인물부』, 혜안, 2007.

崔仁善, 「圓鑑國師의 遺蹟과 遺物에 관한 考察」, 『圓鑑國師 沖止의 生涯와 思想』, 송광사, 2002.

韓國佛敎研究院, 『松廣寺』, 一志社, 1988.

현고환안 편저, 『불일 보조국사와 조계산 송광사』, 불교정신문화원, 2004.

藤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 景仁文化社, 1980.

野守健, 「三島手の年代考察」, 『考古學』第8卷 第5號, 東京考古學會, 1937.

## 국문초록

순천 松廣寺는 신라말기 吉祥寺로 창건되었으며, 고려시대 普照國師 知訥이 定慧結社를 주도하면서 크게 발전하여 조선초기까지 16명의 國師가 배출되는 등 당대 불교계를 리드했다. 이러한 송광사에는 1세되었던 보조국사 지눌의 승탑과 탑비가 건립된 이후, 그의 법을 잇는 여러 국사들의 승탑과 탑비가 조계산 자락의 암자와 여러 말사에 세워졌다.

松廣寺 普照國師 甘露塔은 비문에 의하여 1210년 세워졌는데, 초건된 이후 여러 번 옮겨 다니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감로탑은 1926년 해체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剝地粉靑항아리가 출토되었으며, 당시 기단 하부가 새롭게 구비되었다. 분청항아리는 조선초기에 감로탑을 이건설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감로탑은 사각형, 원형, 팔각형 등 여러 평면을 활용하였고, 탑신석을 圓球形으로 마련하여 부분적으로 五輪塔 양식을 함유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조영 기법과 양식이 독특하여 고려시대 승탑 양식사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조선 후기 성행한 圓球形과 石鍾形 승탑의 시원 양식으로도 사료되어 앞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甘露塔碑는 1213년 4월 처음 건립되었는데, 정유재란으로 파손되자 1678년 10월 기존의 龜趺를 재 활용하고, 碑身과 螭首가 새롭게 제작되어 중건되었다. 그래서 현존하는 감로탑비는 高麗와 朝鮮 두 시대의 양식이 혼재되어 있는 자료이며, 조선시대 중건 시에 기존의 부재를 어떻게 재활용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 Abstract

# Sweet Dew Pagoda and Stele for the National Preceptor Bojo at Songgwangsa Temple in Suncheon-Shi

Eom, Gi Pyo\*

Songgwangsa Temple in Suncheon-shi, was first founded in late Silla under the name Gilsangsa Temple. It grew rapidly during the Goryeo Dynasty after Jinul, the National Preceptor Bojo, headed the Society for the Cultivation of Samadhi and Prajna. The temple became one of the most prominent institutions of the era, producing sixteen National Preceptors until early Joseon. After the Sweet Dew stupa and an accompanying stele were erected for Jinul, the first National Preceptor, more were made for his successors in small temples in Jogyesan Mountain and many branch monasteries.

According to the stele, the Sweet Dew Stupa for Jinul was erected in 1210 but was relocated several times over the years. When the stupa was dismantled and repaired in 1926—the lower part of the stylobate was newly installed—, a buncheong jar decorated with sgraffito design was found inside. The jar was likely used when the stupa was moved in early Joseon. The design of the stupa uses various shapes including square, circle, and octagon, while the main body is in the form of a globe, remarkable in its resemblance to the shape of a five-ringed stupa(gorinto). This distinct style suggests that this monument may have served as an archetype for globular or stone-bell shaped stupas popular in the late Joseon, a possibility that require further research.

The accompanying stele for the Sweet Dew Stupa was first erected in April, but was destroyed during the second Japanese invasion of 1597. In October 1678, it was re-built by putting a new body and a capstone over the original tortoise-shaped base. Therefore, the present stele incorporates the styles of both Goryeo and Joseon, serving as an example of how original material was used for rebuilding during Joseon period.

---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Connoisseu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